

## 식우벽과 카니발리즘

황 기 현 역

<한국유리브리드판매과장>

—디비킹을 하는 시기와 방법은 그 닭의 수명과 사육하는 목적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식우벽과 카니발리즘은 폐사를 많이 내고, 도계처리장에서 도체의 등급이 낮아지게 되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닭들이 불편하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상태를 개선해 주지 못했을 경우 자연적인 자기 방어 본능으로 취하는 행위이다. 어떤 계군을 막론하고 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닭이 쪼거나 긁히거나 또는 상해를 입어 피가 나게되면 이런 악벽과 쪼아 죽이는 닭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밀사, 불완전한 배합사료, 과온과 환기불량 너무 광도높은 점등, 굵이, 굵수 및 헛대의 부족과, 펠릿형이나 또는 너무 미세한 분말 상태의 요소들이 카니발리즘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카니발리즘이 계군내에서 발생하면 그것은 삼시간에 번지게 되며 교정법을 취하더라도 그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 부리자르기 실시

카니발리즘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밀도 사육시 제일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부리자르기를 해주는 것이다. 이 작업은 어느 일령에서나 실시할 수 있으나 대상 계군의 육성과 관리계획의 목적을 많이 참조하여 예정일자를 잡도록 해야 한다. 부리자르기는 부화장에서 일일령에 해줄 수도 있고 육추기(샷갓) 둘레에서 방풍벽(Chick guard)를 걸어 주기 바로 직전이나 또는 계군에서 예방접종을 혹은 초생추사에서 중추사로 이동시키는 중간과

정으로 실시하면 비용과 노력을 절감 할 수 있다. 산란계, 대치계군은 일일령이나, 6~10일령에 반드시 부리를 자르되 정밀한 기술을 요하며 그보다 일령이 많을 때에 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절단후의 결과가 좋으려면 기온이 85° F 이하일때 자르기를 해 줘야 하는데 기온이 이보다 높으면 출혈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만일 2주 이상된 계군에게 부리자르기를 하려면 실시 직전에 적당히 안정제(항생제와 비타민을 같이 쓰면 좋다.)를 복용 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음수와 사료를 넉넉히 주도록 하라

부리를 자른 닭들에게 사료와 음료수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굵이 굵수기에 넉넉히 주어 서 연한 부리가 바닥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부리를 자른후 1주일 동안은 펠릿(pellet) 사료를 주지 말고 가루모이로 대체해 주도록 한다. 아주더운 물이나 몹시 찬 음료수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동과 동시에 부리자르기를 한 계군은 새로운 장소에 안락하게 수용될 수 있게 하고 약간 여분의 굵이, 굵수면적을 더 주도록 한다.

### 부리자르기 과정

부리자르는 것은 위아래 주둥이 일부를 똑 같이 제거하는 방법과 윗 주둥이 일부만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아래 주둥이는 약간 털 자르는 방법 또는 육용계의 경우와 같이 윗 주둥이를 지져 놓은후 10~14일 후 앞부분이 자연히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위와 아래 부리를 똑 같이 잘라주는 경우에는 양쪽 주둥이를 함께 잡고 절단기 날에 뚫린 구멍의 적당한 위치에 놓은 뒤 자르거나 또는 양쪽을 따로 나누어 잡고 한번에 같은 각도로—머리의 양옆을 두손으로 보정한채 잘라 줘도 좋다.

정밀한 기술로 정확히 하려면 부리를 알맞게 단 절단기(디비커) 날에 적당한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일령 병아리를 절단한다는 것은 정교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디비커의 날과 보조기 사이에 전체부리를 집어 넣고 정확한 지점을 겨냥한후 약간 아래 쪽으로 경사가 지도록 잘라 내야하며 윗부리를 아래보다 10%정도 짧게 해줘야 한다. 병아리의 혀를 태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 뒤를 엄지 손가락으로 받치고 식지로는 목줄기를 꼭 눌러 주도록 한다. 디비커로 날이 단 정도가 중간쯤일때—육안으로 봐서 연분홍색을 띠때—실시토록하고 병아리의 부리는 충분히 지져 질때까지 날에 대고 있어야 한다. 어떤일에 있어서도 작업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서둘러 대서 병아리의 부리가 덜 지져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러일러는 약 1½초, 산란계는 약 2초동안 지져주면 된다.

### 육용계 초생추의 부리를 지져서 만든다.

약간 생소한 말이 될는지 모르나 부리에 흠을 만든다는 것은 윗부리의 표면에 콧구멍 주위로 약간 도톰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경계를 잘 달군 디비커의 날로 살짝 지져주는 것을 말한다. 부리 끝을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고 부어있게 두면 초기성장을 좋게한다. 병아리가 10~14일령쯤 되면, 윗부리의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이런 방법으로 디비커를 하려면 잘 달군 디비커날로 앞서말한 부위의 성장조직이 완전히 죽게끔 지져 버리는 것이다.

디비커의 날이 45°정도 경사지게 만들어진 것이 수직으로된 날보다 부리의 꼭대기 부위를 좀더 넓게 또는 평편하게 지져 줄 수가 있다하여 권장되고 있다.

흠만 파놓는 것이 정규적인 디비킹을 하는 것보다 작업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이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성장조직을 완전히 죽일만큼 지져

졌는가에 달려있다. 부리를 지져 놓기만 하는 것은 때때로 일일령에 하는 대신 12~14일령에 예방접종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야의 시험구에서 비교된 바에 의하면 도제서 육용계의 체중은 표준형 디비킹을 한 것이나, 지져 두기단 한 것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예는 없다.

### 6~14일령 추의 디비킹

6~14일령 추는 산란계 대체군을 주로 하되 위 아래 부리를 모두 자르도록 하고 육용계는 초생추때 못한 것에 한해 접종과 동시 윗부리만 제거해 주면 된다. 이때에는 디비커날을 제일 뜨겁게(벗겨 열매와 같은 붉은색) 달구어 실시하도록 한다.

### 산란계 대체계군의 디비킹

6~10일령에 위아래 부리를 같은 길이로 전기 디비커를 써서 잘라 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며 비교적 병아리 다루기와 성과도 좋다. 이보다 일령이 많은 닭에게 하는 것보다 작업속도도 빠르다. 이때만 잘 되었으면 다시 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정도의 일령이면 카니발리즘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부리를 완전히 잘라내는 경우에는 엄지 손가락을 병아리 뒷 머리 부분에 대고 식지로는 목밀을 받쳐준다. 그뒤 식지를 목에 대고 가볍게 눌러서 아래턱을 살짝 당겨준다. 그후 보정대에 부리를 놓고 약간각도가 지도록 자른후 약 2.5초간 지져준다.

일일령의 디비킹을 할때 주의 할점은 디비커날에서 부리를 떼때 충분히 지져진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지지는 시간으로 자른후의 부리 조직을 죽이는 양의 다소가 결정된다. 만일 이조직이 죽지 않고 살아 남으면 탐탁치 않게도 부리가 다시 살아 날 것이다.

### 12~20주령 추의 디비킹

12~20주령 사이에 디비킹이 잘 된 것은 그대로 전 산란기간을 견뎌낼 수 있다. 이 일령에는 자르는 형태를 약간 달리해야 하며 어린 닭에게 실시하는 기술과도 약간 다르다. 윗 부리의 1/2

이나 1/3, 아랫부리는 윗부리보다 약간 짧게 잘라 내되 디비커의 날은 중간 정도의 열도가 되도록 조절 해야한다. 식지를 입속 깊숙히 집어 넣어 혀를 후부 아랫쪽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접착성 테이프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그 손가락을 감아 떼이지 않도록 하라) 윗부리를 보정대 위에 놓고 뒷 머리를 약간 아래 쪽으로 기울여서 자를때 안쪽으로 다소 경사가 지도록 한다.

디비커의 날이 너무 뜨겁게 달지 않도록 하고 너무 콧구멍 가까이 까지 깊이 잘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아래부리는 위보다 약 0.2cm—0.6cm 정도 길게 남겨두고 가능하면 약간 경사가지도록 잘라 주는 것이 좋다.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가며 뜨거운 날에 지져서 뭉툭하게 하고 양쪽가에 날카로운 면이 남지 않도록 한다. 부리를 주의해서 자르고 지져야 쉽게 아물게 되고 사료나 음수섭취를 제대로 못하는 기형 주둥이를 가진 것이 생기지 않는다.

### 산란중인 닭들의 디비킹

만일 산란이 시작 되었는데도 디비킹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카니발리즘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점등법과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디비킹을 하지 말도록 한다. 문제가 크게 번지게 되면 계군에게 스트레스를 최소한도로 적게주는 범위내에서 조는 것이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게끔 위 아래 부리의 끝만 약간 자르거나 지져 주도록 하라. 그렇치 않고 좀더 오래 지속할듯 하면 12~20주령 추에서 권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좀더 심하게 짜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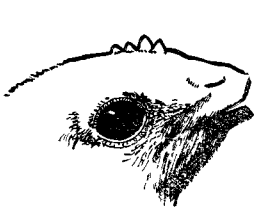
### 다시 자랄때

디비킹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닭들은 아랫부리가 사료나 음료수를 섭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라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골라내어 들출 부위를 잘라 줘야 한다. 닭들을 다룰 때에는 가급적 놀라지 않게 또한 디비킹으로 인한 산란율 감소를 최대화 하기위해 밤을 이용하고 푸른 등을 켜도록 한다.

### 조는 문제

닭이 알을 낳을 때는 수란관이 항문쪽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 알을 낳을 동우리 주위가 밝고 그 닭 근처에 다른 닭들이 모여들 자리가 충분하면 이 빨간 수란관 조직이 미처 항문내에 수축되어 들어가기 전에 쪼아대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닭이 수란관의 탈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항문밖으로 밀려나온 수란관이 정상적으로 수축되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는 내부지방이 수란관을 압박하여 알이 여기를 통과할때 심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차츰 심하여 더 마찰이 심해 지고 수란관이 출혈되면 급기야는 탈출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닭들은 이런 노출된 살덩어리만 보면 디비킹한 닭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쪼으려 하며 흔히 결식이나 들린것 처럼 물고 뜯는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산란계가 죽게되면 밀 빼먹는다고 한다. 디비킹을 하면 이렇게 잠식 당하는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서 완전히 그것을 제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케이지에 수용된 계군의 경우 어떤방법으로 디비킹을 하던 제대로만 되었으면 산란능력은 별차이가 없다.



1일일령이나 6~14일령추의 디비킹



12~20주령추를 윗부리 1/2, 아랫부리 1/3을 절단한 모양



12~20령추를 위아래 모두 1/2정도 절단한모양